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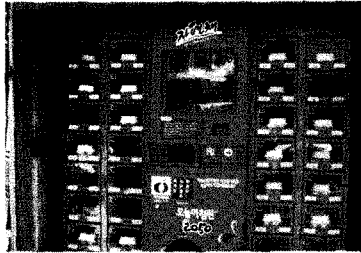
신선한 계란, 자판기를 통해 구입한다

다한영농조합법인, DK벤딩을 통해 생산한 계란자판기 시장 전개 나서



신선한 계란을 파는 자동판매기가 등장했다. 그동안 자판기 시장에 있어서는 계란

을 반숙·완숙으로 조리해 판매하는 제품은 있었어도 계란을 껍으로 해 직접 판매하는 제품은 국내 최초이다. 이 제품을 전개하는 곳은 경기도 광주의 다한영농조합법인이라는 계란 생산 공급업체. 이 업체는 자판기를 통한 무인유통에 관심을 갖고 DK벤딩과 제휴를 통해 계란자판기를 생산 받아 시장 전개에 나섰다. 새로운 컨셉의 계란자판기가 과연 시장 인기를 끌 수 있을까?



다한영농조합법인(대표 이만형)은 지난 11월초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해태그린아파트 단지에 제품을 설치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국내 최초로 선보인 계란자판기는 단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많은 주민들이 자판기로 몰려 이 제품에 관심을 가졌고, 직접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또한 많은 매스컴에서 취재 보도를 진행해 계란자판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케 했다.

이렇게 계란자판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최근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인과 무관하지 않다. 계란 자체도 신선하고 좋은 제품을 먹고자 하는 니즈가 계란자판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이다.

다한영농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당일 생산된 제품을 바로 공급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을 뿐더러 적거래 유통으로 가격 역시 저렴한 게 장점이다. 자판기는 이러한 내용상품의 장점을 적절히 살릴 수 있는 유통기기이다.

이번에 선보인 계란자판기는 계란 10개 묶음 껍 40개가 들어간다. 사물함 적재방식으로 판매되는 내용물이 한눈에 보여 신선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 2500원을 집어넣고 버튼을 누르면 껍이 들어있는 문이 열린다. 대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계란보다 1000원 정

계란자판기가 적재적소의 로케이션을 개척하고 신속한 내용상품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이 커 보인다. 계란의 중간 유통을 배제하고 계란자판기를 통해 직거래 유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도 싸다.

1호로 설치한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해태그린아파트 단지 내의 계란자판기는 뛰어난 계란 신선도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한영농조합법인은 연말까지 9대를 더 만들어 광주 주요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다한영농조합관계자는 "사료 값이 오르고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살리기 위해 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는 계란자판기를 생각하게 됐다"면서 "자판기 안에 들어가는 계란은 당일 생산된 것으로 팔리지 않은 계란은 다음 날 즉시 수거된다"고 말했다. 광주시에 계란자판기 설치가 가능한 이유는 지리적 특성 때문이다. 도시영농복합도시인 광주시는 계란 생산 농장 근처에 아파트가 많다. 10~15분 거리 안에 있어 당일 조달이 가능한 것. 다한영농조합법인은 "10개 자판기 설치가 완료되면 6개 농장에 2~3개의 자판기를 배정해 신선한 계란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계란자판기가 적재적소의 로케이션을 개척하고 신속한 내용상품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이 커 보인다. 계란의 중간 유통을 배제하고 계란자판기를 통해 직거래 유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일반유통을 통해서라면 계란이 생산되는 시점에서 식탁에 오를 수 있는 시간이 평균 1

주일이라고 한다. 이 정도의 기간이면 계란 신선도가 많이 떨어진다. 자연 맛도 유통기간이 짧은 계란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계란자판기를 통한 유통은 당일 생산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해서 신선하고 뛰어난

계란 맛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격 역시 직거래 유통으로 일반 유통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특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웰빙 계란을 판매하는 방법. 예를들어 한약재 사료를 섞은 모이로 키운 닭이나, 좁은 닭장에 가두어 키우지 않고 방목을 한 닭이 난 계란을 판매하는 것도 소비자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계란이라는 먹거리의 특성상 가장 유망 로케이션은 아파트 단지이다. 주부들이 필요한 때 바로 바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자판기가 살릴 수 있다면 파급력은 실로 대단할 수 있다. 입소문으로 계란자판기의 높은 효용가치가 소문이 나다보면 많은 아파트단지들이 계란자판기 설치에 적극성을 보일 수 있다.

계란자판기가 성공을 한다면 다른 농수산물 먹거리도 접목을 할 수 있다.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자판기로도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계란자판기의 등장과 좋은 반응은 무척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